

ne

소유_돌
Pure Possession_Stone

이혁준
Yi Hyuk Jun

경기창작센터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기억>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박슬기

행정지원
채치웅(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이현인, 서정민, 조혜정,
이주현, 조근하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번역
신해린,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3. 4

본 출판물은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
이 책은 2013년 경기창작센터 AIAV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장서윤, <상징적 의미로서의 보석의
자수조형 2009>, 이화여자대학교
하경숙, <힐데가르트 보석요법이
중년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효과>, 대구카톨릭대학교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in 2013
<Memory>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Kaye Yoon,
Park S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Choi Chi Yong(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ee Hyunin, Seo Jeongmin,
Cho Hyejung, Juhyun Lee,
Keunha Cho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i,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Haerin Shi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4 March, 201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Memory> of 2013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기억〉을 열며

경기창작센터의 2013년 하반기 특별전은 당해 입주작가 5인(팀)의 소규모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창작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 대규모 상설전으로 입주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였고 참여작가인 김미란, 박형근, 고영택, 이혁준, ETC 총 5팀이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전개해 오던 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향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용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창작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야키요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혁준의 결과보고전이자 소유와 욕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그 본질을 돌아보고자 반문하는 새 작업을 소개하는 〈AIAV결과보고전: 소유_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점점 무너져갈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영택의 영상설치 작업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 작가의 꿈과 환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거대한 와이어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김미란의 〈기계의 무의식〉,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의 생태지대 꽃자왈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자연지대에 대한 기억, 그 장소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상흔을 통해 작가를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보여주는 박형근의 〈금단의 숲: 꽃자왈, 숲의 기록 2009-2013〉,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만든 프로젝트, ETC의 〈시화, 시가 되다〉는 모두 '기억'(memory)을 매개로 독특한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IAV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1998년 야마구치현의 아키요시다이에 설립된
 기관으로 시각 예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지원한다. 일본 국내외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야마구치현의 지역민과 예술가들의
 교류를 그 운영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창작센터는 2012년부터 AIAV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Trans 2012-2013
 기간 2013년 1월 22일 - 3월 12일

주요 프로그램
 Open Studio (2013년 2월 9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 및 교육 기관)
 지역 주민 교류
 결과 전시

사이, *Between*
2013. 3. 8 - 10

지극히 현대적 도시의 삶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숲에 대한 작업들이 기억이라는 시간적 속성에서 출발했다면 자연과 근접한 장소에서 시도한 <*Between*>은 공간에 의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도시를 거쳐 도착한 AIAV는 시골 숲 속에 위치해 있었고 꽤나 번듯한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사용하게 된 작업실은 원래 공연을 위한 분장실이었다. 나뭇결 인테리어와 불박이장을 마주본 한쪽 벽에는 분장을 위한 화장대가 줄지어 있었다.

도시에서 숲으로의 이동, 그 안의 석조 건물 속에서 다시 마주한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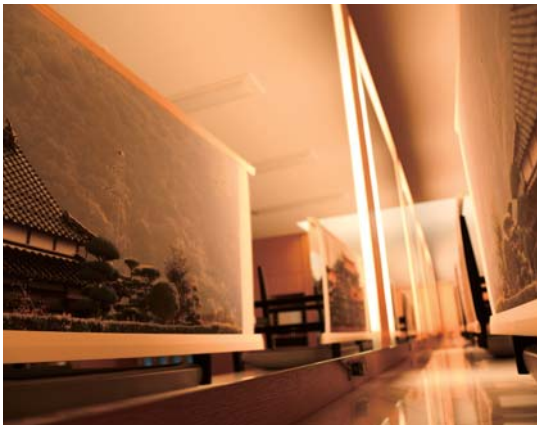
주변에는 드문드문 나무로 만들어진 농가들이 있었고, 걸어서 사십 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마을에도 일본식 목조 주택들이 주를 이뤘다. 작업실과 주변의 숲, 마을들을 오가며 진행한 이 작업은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AIAV



Between 1
160 x 100 cm
Pigment print
2013





〈소유_돌〉은 AIAV 참여 기간을 포함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작업으로 소유에 대한 첫 시리즈이다. 사진, 보석과 시멘트를 이용한 조각 설치, 원석과 유사물들이 혼합된 오브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석이 갖추어야하는 조건들에 대한 글귀와의 상호 작용이 포함된 작업이다.

아름답다 미(美)
 단단하다 내구성
 흔치않다 희소성
 가지고 싶다 수요성
 원래 그랬었다 전통성

Pure_Possession - Stone

Yi Hyuk Jun

Possessing something is important. For the sake of a better, more human life.

What does it mean to possess something?

The object of possession can be natural matter or artificial creations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Or, at times, certain values or the very criteria for valuation within a given social structure. Such acts of possession are often deemed to be personally achieved, but in many cases they are accomplished on community or public levels.

Let us not concern ourselves with immaterial objects such as power, occupation or honor for now. Also, let us sidestep the issue of human interrelations. Here, I wish to discuss a more generic topic, that of physical possession in the realm of universal reality.

In the rubric of complex contemporary society, or our lives that are in fact becoming even simpler, possession has becom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ocial status of the subject, going beyond its simple definition as “the accumulation of goods with the aim of maintaining a safe and comfortable life.” This isn’t a particularly recent development. From times of old, those who possess were superior to, conquered, and ruled over others who did not. Perhaps the social status the privileged occupied led to even greater possessions. Regardless of the casual logic, these two conditions gave rise to a cycle of inequality.

Possession is an act grounded in desire.

It can be seen as the realistic embodiment of inner desire. Of course, not all desire could be embodied in the form of possession, and in that sense, desire is more fundamental and categorical whereas possession is concrete and explicit. And the physical desire of human beings can be categorized into mental and physiological desire based on their points of departure. Physiological desire entirely relies on sensory input. For convenience’s sake, let us call this primary desire, and label mental desire as secondary. Possession by primary desire i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One must secure nourishment when hungry, and find something to warm the body when cold. This realm may appear to be primal, but most acts of possession we see in our contemporary life belongs to this category. People need sunglasses to protect their eyes from bright light; refrigerators to preserve food safely and for a longer period; vitamin pills and workout devices, or at times gym memberships to maintain physical health. Most of the goods sold at wholesale/ discount stores such as cars, watches, smart phones or computers are in fact in this category. Also, various immaterial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that help us overcome life-degrading stress have become critical elements for survival in our lives.

Possession motivated by the secondary desire belongs to a higher level, and may appear to be less practical. This kind of possession, which aims to sate mental thirst, is influenced by psychological and affective dimensions such as value systems and aesthetic standards.

소유_둘

이혁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는 어떠한 행위인가? 소유의 대상은 자연의 물질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재료들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물이기도 하다. 또 때로는 사회 구조 속에서의 특정 가치 혹은 그 척도 자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소유의 행위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체 혹은 공공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형의 대상들 즉 권력, 직업, 명예와 같은 것들은 일단 뒤로 하자. 그리고 인간적 관계에 대해서도 비켜놓는다. 보편적 현실 차원에서의 물리적 소유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복잡해진 현대사회, 아니 어쩌면 단순해져 가는지도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소유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해가기 위한 재화의 축적'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주체의 사회적 위치까지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이들에 비해 우월했고, 정복했으며, 또 지배했다. 아니 어쩌면 높은 위치에 있기에 더 소유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먼저였든 이 두 가지 상황은 헛 바퀴 둘 듯 차등적 상황을 만들어왔다.

소유는 욕망에 근거하는 행위다. 내재적 욕망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욕망이 소유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욕망은 좀 더 근본적, 포괄적이고 소유는 구체적, 현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정신적 차원의 욕망과 생리적 차원의 욕구로 구분될 수 있다. 생리적 차원의 욕구는 인간의 신체적 감각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편의상 이 경우를 일차적 욕망, 전자를 이차적 욕망이라 칭하도록 한다. 일차적 욕망에 의한 소유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 배가고프면 먹을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해야하고, 추울 때는 몸을 데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한다. 이 영역이 원초적으로 보일 지도 모르지만 실제 현대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소유 행위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빛이 밝을 때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가, 또 먹을거리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해 냉장고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제와 운동 기구들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스포츠 센터의 회원권이 필요하기도 하다. 자동차나 시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사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무형의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 역시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차적 욕망에 의한 소유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혹은 좀 더 쓸모가 없어 보인다. 정신적 만족을 채워주는 단계에 접어든 이 소유는 가치관과 미적 기준과 같은 정신적, 감성적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 두 가지 욕망과 소유의 양상이 칼로 무 자르듯 손쉽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편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한 중간적 형태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거의 모든 형태의 소유 행위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일정 정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람마다 욕망의 대상과 정도가 다양하고 그로인한 소유의 기준과 양상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내면의 문제를 획일화 한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이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비판이나 규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와 욕망에 대한 반문을 통해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져보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루는 소유는 다소 극단적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욕망과 소유에 대해서라는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욕망이 정신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용적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더 맞을 듯하다. 이리 저리 생각해보아도 보석은 별 쓸모가 없다. 삶(생명)을 위해서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어쩌면 꽤 그럴듯한 조합일 수도 있다.

Of course, the kinds of desire and possession cannot be clearly differentiated. There are intermediate states, and in fact the greater majority of possessions harbor characteristics from both categories. Also, designating the standards for categorization in a universal and objection fashion also appears to be an impossible task, as people have differing degrees and objects of desire, which means the standard and modes of possession may also vary. Also, there exists the risk of essentializing problems that belong to the inner realm of human thought.

Despite such dangers, I attempt this analysis not in order to criticize or designate possession, but to reflect on my own life and the essence of ourselves by questioning what desire and possession may mean.

The kind of possession, in other words mental desire and possession, is rather radical. The reason is simple. Because it looks more human, and because desire for gem stones is more impractical than mental. Reflection tells us that gem stones are indeed pretty much useless, at least for life (sustainment). Pearls on a pig's neck. This could be a good combination.

What are gem stones? In general, this word indicates valued stones - in a more professional sense, gem stones mean objects that satisfy conditions such as beauty as mineral, traditionality, rarity, and desire for possession. Under these conditions, certain stones become special objects to us human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conditions that define these gem stones complete their values by forming proper, organic relationships. Conditions that appear to be systematic and scholarly go beyond their simplicity as properties, and serve to protect and maintain the values in strong framework. And more realistic reasons such as rarity or demand, rather than the abstract notion of beauty, play critical roles in our capitalistic society.

The act of possessing these special stones is no longer limited to the upper level. Most weddings entail exchanges of gems, even small towns have jewelry stores, sellers and buyers abound online or through home shopping channels. Even the price has considerably gone down. In short, owning gem stones has become a universal act. Indeed, rarity as the central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gems has lost its station. Gems have been mined for centuries, and people seldom lose their precious acquisitions, taking care to preserve and retain their possessions. However, we still value and cherish gems; in this regard, gem stones are symbols of higher human values, signs of psychological desire, instead of practical goods to be used in our daily lives.

No one can possess everything he/she desires. If there are such people, the boundaries that define their lives would probably be severely limited or exceptionally rigid. Or they may have reached a level that transcends mundane desires. The latter case is devoid of realistic context, and the former two may appear more sage, but sad. Or, too prideful.

We always face the forking roads that each head out towards what we can have, and those we cannot. We think possession leads to abundance, but this may not always be the case. Choosing means leaving out the rest.

As mentioned above, possession is based on the endless demands of human desire. Unfortunately, possession does not resolve, if temporarily sate, the desire itself. Then, what are we to do with our relentless desires? I cannot provide an answer - but desire is to be regulated and controlled. This is a matter closely interconnected to happiness, which is what we ultimately seek until the day we perish.

가치 있는 돌

보석의 조건

보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돌, 좀 더 전문적인 정의로는 광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지칭한다. 즉 이들 기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특정 돌들이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 첫째, 아름다움

처음부터 적지 않게 곤욕스럽다. 미술의 범주에서 사진을 하고 있다는 작자가 아름다움이 가지는 난해함 앞에서는 늘 혼란스러웠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는 범주가 주는 무게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든 돌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널려 있는 물체이다. 때문에 종종 하찮음을 비유하는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런 돌들 중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는 것들의 미(美)는 다른 경우의 아름다움과는 무엇인가 다른 듯하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향했던 시절들이 있었다. 그 양상과 기준이야 각기 달랐지만 대다수가 따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미에 대한 기준들은 늘 다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미적 가치에 의해 부정되고 대체되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미의 기준이 존재하는 듯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패션은 몇 달이 안 되어 새로운 유행으로 거듭나고, 한 때 멋지다고 여겨졌던 거의 모든 대상들은 얼마 되지 않아 꽤 촌스러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일상의 수많은 논쟁들은 늘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예의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미의 유동성은 이제 골치 아픈 미학 서적에서 거론되는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왜 변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상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대상을 다루고, 바라보고, 향유하는 인간의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주체인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인 고로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 역시 늘 불안정하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규칙이나 기준들이 완전할 수 없듯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의 보편적 유동성이 무력해지는 특별한 영역이 보석의 세계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럴까? 이 돌들이 정말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늘 인정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기로 한다.

- 둘째, 내구성

튼튼해야 한다. 단단해야 한다. 사실 단단한 물질은 너무도 많기에, 대부분의 돌들은 단단하기에, 또 어떤 보석들보다 단단한 보통의 돌도 존재하기에 이 특징은 그다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더구나 내구성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앞서 언급했던 일차적인 욕구의 대상들, 즉 실생활에 직접적 활용도가 있는 물건들이 가져야 하는 속성으로 자주 거론되는 특징이다. 가구나 휴대폰 같은 그런 물건들 말이다. 그런데 이 단단함이라는 평범한 조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의미심장한 면이 있다. 단단하다는 것은 변치 않음을 의미하고 영원을 향하는 기대를 반영한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물질적 속성이 소멸이라는 인간의 오랜 강박관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아름다움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사실 인간의 영원에 대한 희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불멸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 영원하고, 유일하며, 절대적인 신의 존재, 영생, 율회와 열반 등은 모두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생명의 한계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리고 종교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인간의 믿음을 기반으로 교리와 성전, 조직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영원에 대한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왔다. 반면 보석에 담겨 있는 불멸에 대한 욕망은 단순하지만 좀 더 획득하기 쉬워 보인다. 그리고 인간의 내재적 속성인 아름다움을 물질적 대상에 전도시키려는 경향과 이 내구성이 결합되는 순간 미의 영원성도 보장된다. 변치 않는 가치. 단단한 아름다움. 유혹적이지 않은가?

- 셋째, 희소성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수가 적은 것일수록 가치 있다. 당연히 들리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늘 껄끄럽게 느껴졌다. 사실 인간 욕망 시스템의 핵심일지도 모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욕망의 가장 나약한 영역으로부터 온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희소성에 의한 가치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는 개인적 차원보다 집단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로 인한 극단적인 가치는 때로 필요성이라는 욕망의 핵심적이고도 당연한 차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지구상에서 몇 개 밖에 없는', '상위 0.1퍼센트만이...' 라는 식의 수식어는 외부로 향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 대상의 가치를 뒷받침 한다. 물론 이는 비단 보석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명품이라는 것들의 가치는 그것이 튼튼하거나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는 효율적 차원의 기준이 아닌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가능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가치 있다.' 라는 기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모든 객체는 그것이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이던 길거리에 차고 넘치는 돌덩이이건 간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때문이다. 이 희소성의 신화가 완성되는 데에는 '차이'라는 개념이 양면성을 띄고 작용한다. 보통 그 가치는 작은 차이에 의해 완성되는데 흔하지 않은 명품이나 최고의 보석에는 소위 안목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향유한다는 식의 논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작 그 작은 차이를 평등하게 적용시킨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로 인해 나름의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 비록 그와 비슷비슷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할지라도 말이다. 어쩌하였든 희소성은 흔히 발견되지 않는 돌이라는 의미를 넘어 보석의 가치와 위상을 결정짓는 가장 솔직하고 명확한 이유이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조건은 다분히 근원적으로 불평등하고 표면적으로 유지해 보인다.

- 넷째, 수요성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 수요성은 앞에 거론했던 특징들과는 달리 보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 시스템 차원의 이야기다. 외적인 상황인 시장의 문제, 사람들의 사이의 문제라는 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석은 가치 있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특징은 나머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압도한다. 그래서인지 현 시대에 보석의 기준으로서 수요성은 정신적으로 좀 더 솔직하고 순수해 보인다. 필요와 연관 없는 순수한 수요는 정신적 가치의 정수를 의미하며 곧 정결한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필요가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당연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실상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요와 필요의 관계는 가끔 색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가적 요인들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다. 광고, 통계, 마케팅 등의 여러 경영, 혹은 경제적 장치들이 개입한 상황에서 그 관계가 다소 혼란스러워져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관련성이 희미하거나 혹은 거의 상관없이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석의 수요성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만큼은 희소성과 함께 보석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섯째, 전통성

전통이 있어야 한다. 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다른 말로는 전통적인 발상인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여전히 귀하다. 이는 할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 사실 현 시대에 귀에 담기 좀 껄끄러운 말이다. 새로움과 전통 사이의 긴장을 통해 인류는 발전, 아니 변화해왔고 그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철학은 당연히게도 이리 저리한 이유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가끔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와는 다르다. 전통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 이 경우 우리는 예전부터 미풍양속이라 불렀다. 때로는 불필요한 관습 - 인습이라 말하기도 한다. - 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는 전통성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시대의 가치관에 따른다. 그런데 무수한 변화가 진행되어온 인류 역사 속에서 특정한 돌들의 높은 위상은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와 별 상관없이 말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떠받들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이고, 내가 아는 한 가장 유구한 시간동안 변함없이 인류가 지켜온 전통들 중 하나이다. 그래야만 보석이다. 어쩌면 보석의 보자는 지킬 보(保)자인지도 모르겠다.

- 마지막, 휴대성

보석의 조건 안에 휴대성이 들어가는 것은 가지고 다니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그것들이 소유한 이들을 보다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속물적으로 보이는 이 조건은 다른 조건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매우 희귀하고 견고하면서도 오랜 전통까지도 갖춘 아름다운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 소유자의 뛰어난 안목과 위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휴대성은 다른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조건인 아름다움, 전통성, 수요성, 그리고 원래 그 자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희소성과 내구성, 휴대성. 현대 사회에서 이 보석의 조건(특징)들은 적절하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석의 가치를 완성시킨다. 체계적, 학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단순한 특징으로의 역할을 넘어 그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견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막연하지만 가장 당연해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희소성과 수요성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조건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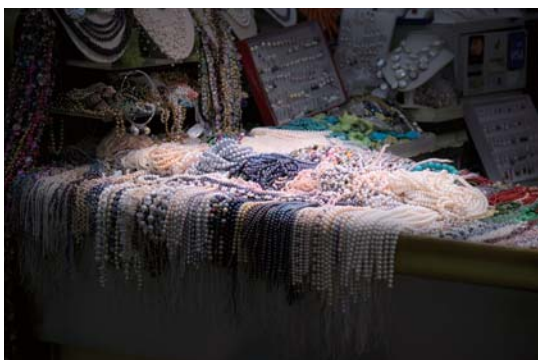


写真-書 011
40 x 55 cm
Pigment print
2013

写真-書 014
40 x 60 cm
Pigment prin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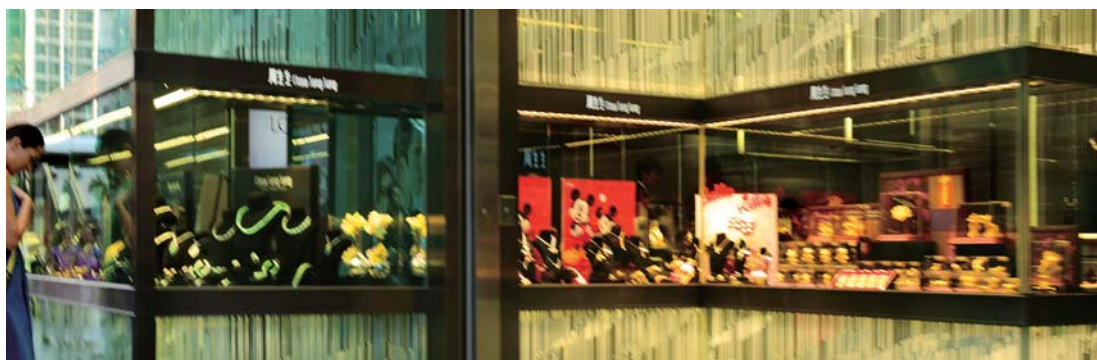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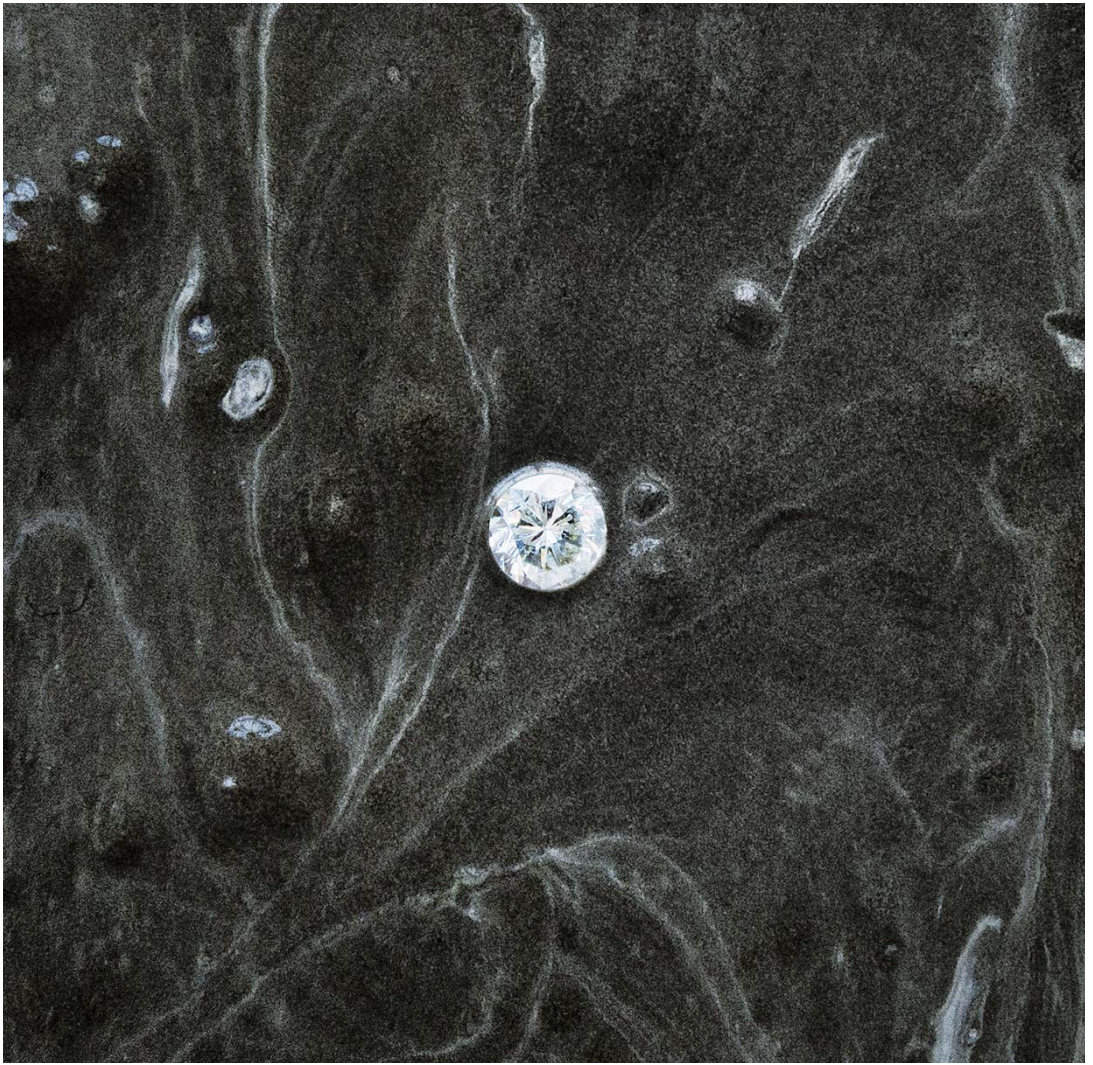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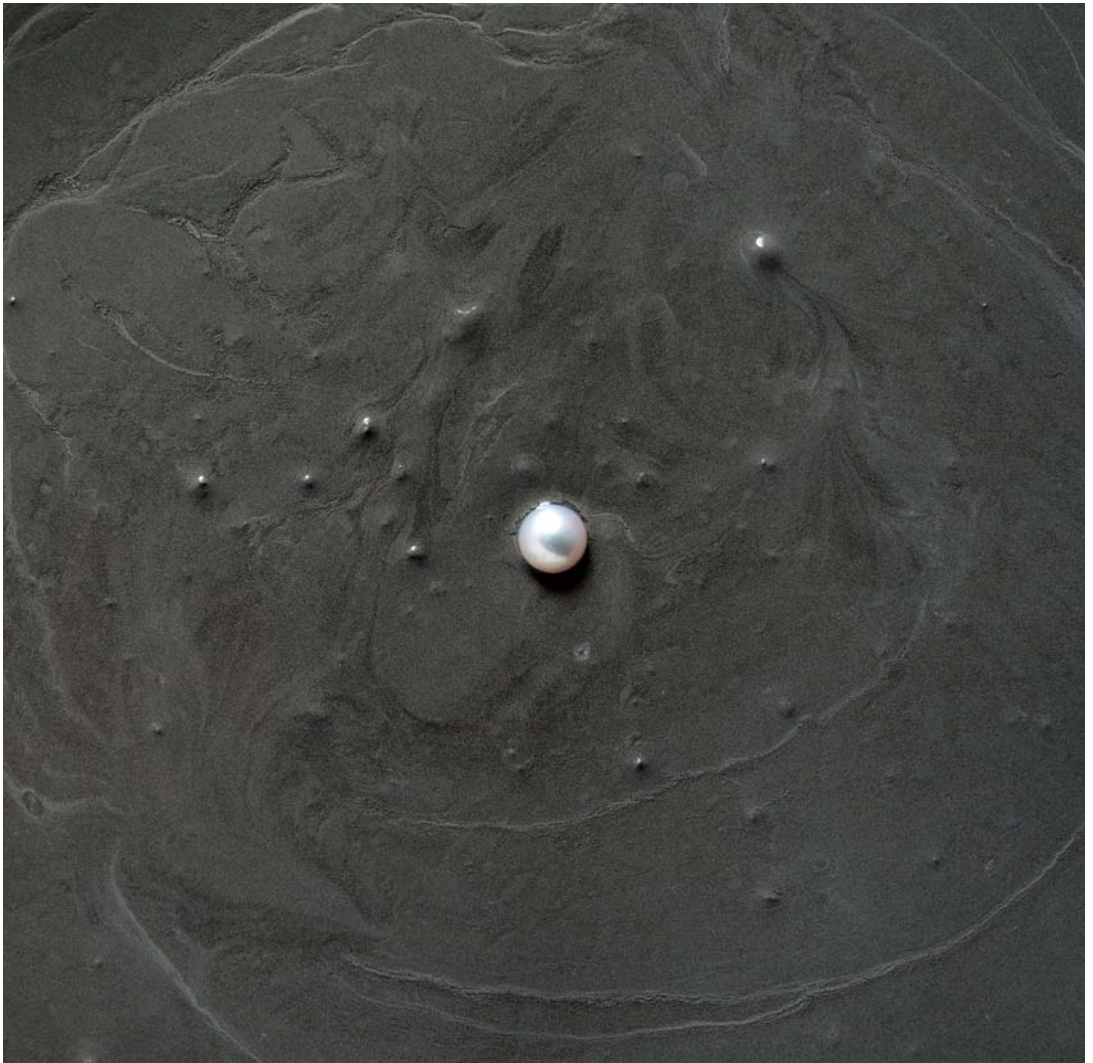


写真-書 019
40 x 118 cm
Pigment print
2013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고 서열을 매긴다. 그리고 보석은 그 가장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이고, 살폐본 조건들은 그 가치를 보증한다. 그 정당성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의문 앞에 서게 됐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지 않게 버거운 주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정리해본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가치란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 대상과 맺는 관계는 앞서 언급했던 욕망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용적, 물리적인 관계와 정신적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구분 역시 대상 자체에 각각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들은 그 비율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속성을 일정 정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게도 관계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원래 자연계에는 가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 실용 관계에 의한 가치: 효용 가치

인간에게 실용적 가치는 실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크기는 얼마한지 연비는 얼마나 되고 내구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문제이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영양소와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맛은 어떠한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은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걸치며 지낼 만큼. 그리고 단순한衣食주의 차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적 삶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용성 말이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 문화가 다르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눈높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는 시대와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먼 옛날부터 자연의 대상에 대해 효용의 가치를 부여해왔고, 언제인가부터 필요에 의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상들은 거의 대다수가 실용적인 활용을 전제로 한다. 어떤 관점에서든 인간 스스로에게 쓸 모 없는 물건을 만들어 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러 저러한 재료들을 뒤섞고 나누어 만들어낸 이 산물들은 꾸준히 우리 주변을 점유했고, 그 변화가 정점에 다다른 현재 넘쳐나는 효용 가치들에 둘러싸인 우리들은 그 풍요로움에 충분히 길들여져 있다. 여러모로 손쉬워지고 편리해진 환경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닌 인간을 찾아보기란 이제 쉽지 않다.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차를 타야하고 삼층이 넘어가면 기계의 힘을

빌리고 항상 따뜻한 물을 필요로 한다. 또 정신적 만족과 일상으로부터의 환기에 필요한 여가 활동, 취미 생활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재화들과 각종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실용적 가치는 이제 우리의 육체를 넘어 정신마저 지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실용적 관계의 중요성은 보통의 경우 낮아질 수 있도록 나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음식이라면 맛이나 신선도, 혹은 열량에 대한 기준. 자동차라면 연비, 최고 속도 등의 제원들이다. 비교적 과학적이고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이러한 기준들은 분석, 통계 등의 체계화된 시스템들과 어우러져 경제적 차원의 가치를 산출해 내고 우리가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 정신적 관계에 의한 가치

인간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정신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는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인간의 내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높은 대상들은 당연히게도 실제 삶과 맞닿는 실용적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오래된 가족사진, 첫사랑의 남겨진 편지와 같이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 유명인들의 유품이나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의 흔적이 남겨진 대상들, 예술 작품, 그리고 이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보석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효용 가치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하에서 사회적 기준과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반해 이 영역의 가치 체계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정신적 차이를 자로 재듯 측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실용적 가치 체계에 익숙한 우리들은 여기에서 역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가치 체계는 우리의 불안정한 취향과 정신적 지향점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대상의 가치는 보다 견고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척도에 의한 평가를 통해 우리는 그 대상들을 경제적인 수치로 손쉽게 전환시키기도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여러 평가 기준이나 보석의 감정 기준 등이 이러한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신적 단계의 판단에 대한 통일되고 개관적인 판단의 기준들은 거의가 지나친 단순화의 과정으로 보이며 당연히 여러 반문의 여지들을 남길 수밖에 없다. 개인적 편차가 큰 정신적 관계의 특징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로 인한 당연한 이해와 불이해, 혹은 외면과 선호라는 수평적 차이가 수준 혹은 안목이라는 수직적 차이로 단정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듯하다.

- 가치의 기준

인간과 관계 맺는 모든 대상들의 중요성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숫자. 좀 더 정확히 그 대상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양에 의해 가능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관련한 시스템의 활용도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문득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스스로를 감지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책감이 드는 것을 지우기는 힘들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꽤나 편리해 보인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경중을 비교하고 따질 수 있기에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숫자 게임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물질적 관계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고, 비축의 수단이 된 지도 오래다. 그리고 단순히 재화의 가치를 가능하는 척도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스스로를 평가하고 기준 짓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석의 가치

우리는 높은 가치의 대상을 소유하려는 당연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석은 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의 상징이었다. 이는 비단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의 물질만능주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석의 조건들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인간은 보석에 대한 집착을 해왔다. 왜 인간은 오래전부터 보석을 귀하게 여겨왔던 것일까? 이런 저런 풍문에 의하면 그 출발은 흔치 않은 이 돌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 역사의 변화 시기에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구시대의 가치 체계도 적지 않게 영향 받아왔음에도, 그리고 오래전 존재했던 돌에 대한 이러 저러한 믿음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우리 선조들의 강한 믿음이 담겨 있던 이 특별한 돌들의 위상은 여전히 드높다. 왜 보석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보석의 소중함을 지켜온 것일까?

- 집단 취향과 시스템

원래 시작부터 보석은 믿음이라는 정신적 활동에서 출발했고 앞서 기술했던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거의 대다수가 높은 가치를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관계는 특별하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비교우위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것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아무나 가질 수 없이 희귀한... 것에 대한 욕망은 보석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조금씩 스스로의 양상을 변화시켜왔다. 실재 근대 이후 인간이 이루어낸 물질적 혁명은 보석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채광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석을 만들어 내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사실 보석의 가치에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석에 대한 오래된 우리의 욕망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가능성을 무마시켰다. 현재에 와서는 아름답다는 믿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역사와 의미, 고귀함, 단단하기에 영원한,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이 가져다주는 상대적 우월감 등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잘 짜인 시장 환경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유지하며 보석의 가치를 보호해가고 있다. 지금 보석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사회적 교육,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의 양이 방대한 상황에서 공공연한 방법을 통해 그 가치가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광고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동화책이나 장난감에서부터 TV 드라마와 영화, 언론 매체의 기사나 또 다른 형태의 정보들 속에 더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특정 권한을 가진 지점에 위치한 소수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조금 특별한 현상일 뿐이다. 사실 보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한 것이 아니다. 어지간한 결혼식에 늘 보석이 오가고, 굳이 멀리 찾지 않더라도 동네마다 하나 이상의 보석가게는 존재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도 일반적인 산업권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일정 정도 보편화되어있다는 말이다. 사실 보석이 그 위상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 조건 중 하나인 희소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둔화되었다. 지금도 꾸준히 채광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중한 돌들을 우리들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다루기에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말이다. 우리 모두는 치장을 위해서,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소중한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석을 욕망한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개인적이건 혹은 집단적이던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다. 효율적 가치야 인간의 신체구조가 비슷비슷하기에 그 통합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우리의 삶에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의 방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획일화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왜인지 불편하다. 조금은 다른 맥락일 수 있겠으나 하나의 종교나 이념, 철학이 개척, 혹은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확장되었던 경우나 아무리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전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기 힘들듯 말이다.

아름다운 돌

일반적으로 보석의 가치는 그 영롱한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직관적 관점에서, 혹은 조금은 낭만적이고 순진한 입장에서 보석의 가치가 미(美)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때문에 보석의 아름다움이라는 특징은 보석에 대한 우리 애정의 가장 납득할만한 이유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석이 가진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미 언급했었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생각을 보태본다.

아름다움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런데 미를 갈구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미술이라는 범주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다가가려할수록 더 멀어지고,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이고야 마는 그런 느낌이다.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정신적 문제이고, 극단적로 치달을 때 실용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경우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가치다. 아름다운 대상을 향유하고, 바라보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지극히 당연해 보임에도 이에 대해 분석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제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행위는 늘 어디인가 부족해 보인다. 때때로 접하는 이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담론들은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기 일쑤다. 다만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어렵듯이나마 단정 짓고 있는 것은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사실 전적으로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 즉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무엇 무엇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인다. 나름의 아름다움을 찾아오면서 이러저러한 변화를 겪어왔다. 아직까지도 알쏭달쏭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 조심스럽게나마 두 가지 이야기를 건네어 본다.

- 절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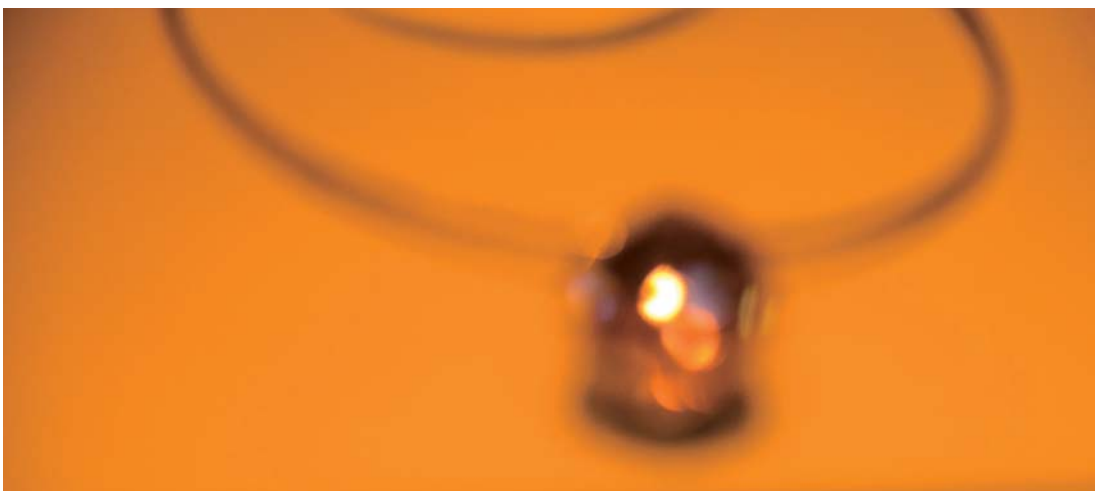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미학서적에서 그 아름다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알 듯 모를 듯 무수한 논리들이 경합을 벌인다. 그런데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미라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추함? 아니 평범함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다. 그 가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평범함과 경쟁 상황에 존재한다. 때문에 평범한, 보편적인 상황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아름다움은 그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다분히 반향적 존재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대상들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숙연해지고 긴장하며, 때로는 편안해진다. 호흡이 가빠지기도, 체온이 상승하기도 한다. 머릿속이 한없이 복잡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적막의 평온이다. 이 모든 것은 무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느 한 시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통해 아름다움을 체험한다는 것은 평범치 않은 무엇인가를 만나는 것이고,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결코 흔한 경험이 아니다.

- 유동적이다.

모든 대상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가? 정말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상들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변치 않는 상황에서 아름다움 역시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대상이 어느 날 문득 평범하게 혹은 지겹게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경험한다. 아름다움은 대상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이 관계의 주체는 분명 인간이다. 인간에 의해 느껴지고 판단되는 가치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다분히 개인적 차원의 가치이기에 사람에 따라 그에 대한 취향과 판단, 향유의 기준이 각기



소유-물 005
75 x 170 cm
Pigment print
2013



소유-물 006
35 x 52 cm
Pigment print
2013



소유-물 008
35 x 63 cm
Pigment print
2013



다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마음이 한결갈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로 인해 미에 대한 한 인간의
개인적 기준 역시 늘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정 정도 시간을 두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나타나기도 한다. 매일 보는 거리가 어느 날 전혀 다른
감상으로 다가오듯 아름다움은 어떤 면에서
깨달음에 가깝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인가가 누구인가에게 영원히
아름답게 인식된다는 것 역시 일종의 환상에 가깝다.

돌이 아름답다는 것
아름다움은 인간의 속성이기에 모든 대상의
아름다움은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당연히 늘 변하기
마련임에도 우리는 보편적 아름다움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위 말하는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 기준의 아름다움 말이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인간에게서 대상으로 아름다움의
위치를 전이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언어습관에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아름답게라는 부사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말이다.
상품이 된 보석은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아야하며 보석에 특별한
취향이나 미적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라도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리적이어야 한다. 특별한
돌의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것은 확고한 가치를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보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4C는 1930년대
미국 기업인 GIA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안되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이것은
그 아름다움의 정도를 산정하는 척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다른 보석에 대한
판단에도 응용되고 있다.

1 투명도(Clarity)

천연 다이아몬드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의 양을
말해주는 기준으로 총 13단계로 측정, 표시한다. 당연히
깨끗할수록 높은 가치가 산정되며 이는 곧 순수함에
대한 평가 체계이다.

2 색상(Color)

무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무색
D등급에서 알파벳에 따라 단계가 내려가며 황색의
기운이 짙은 경우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다. 종종
특별한 색상의 경우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3 중량(Carat)

다이아몬드는 중량을 통해 크기를 판단한다.
1캐럿은 대략 200mg이다. 크기가 클수록 희소성과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다.

4 컷(Cut)

보석의 컷은 보석의 질을 결정짓는 인위적인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어떻게 가공되어있는가는 빛의
굴절을 만들어내 그 반짝거리는 영롱함을 결정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가의 보석 산업에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개인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분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확고한 기준들이 그 가치를 보다 명확하고
견고하게 뒷받침하면서 전문 감정회사들이 제시하는
판단이 그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된 것이다.
인조보석이나 유사 보석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전문 회사의 감정서 한 장에
의존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야하는 점. 과연
보석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보석 역시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특정한 돌들이
아닌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는 인간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의 내면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꺼내어 마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상황이 아닐까?

의미 있는 돌

효용성을 뒷받침하다

보석은 선사시대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동물의 뼈나 조개와 같은 것들로 장신구를 만들었고, 이후 사람들은 특별한 돌들에 비상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에서는 이들을 점성술과 연결시켰고, 고대 인도에서는 루비가 건강, 지혜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은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나 희소성 이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은 강력하다. 지구상의 다른 생물에게도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와 같이 스스로의 존재와 생의 의미를 결정지을 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할 때 그것은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종교가 그러했고, 이념이 그랬다. 보석의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이러한 정신 작용은 중요했다. 그것이 부, 행운, 지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고,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믿음의 양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랐지만 모두가 보석의 가치를 형성시킨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그리고 여러 상징과 의미들에 대한 믿음은 실재 물리적으로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것들이 가지지 못한 효용성을 대체해왔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석의 소유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 충분히 가치 있는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돌들이 품고 있는 나름의 의미와 상징들은 과학적 이성 지배하는 시대에 와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석은 최상위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인 부의 상징으로서 말이다.

권위-권력

사회의 최상위층을 구성하는 왕가와 귀족층은 대부분 과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보석의 소유자였다. 이들이 지닌 보석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위와 권력의 결과였고, 그 가치 있는 돌들은 다시 그들의 차별적 지위를 각인시켰다. 중세 유럽에서 보석은 종교의 고결함과 권위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많은 수의 보석들이 교회에 귀속되어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고, 성직자의 반지로 사파이어가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탄트라 불교에서 다이아몬드는 신적인 힘의 상징이었고, 라오스에서는 에메랄드로 불상을 만들기도 했다. 루비는 이슬람교의 성석으로 통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용기와 힘, 권력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왕관의 정면에 장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역시 열정과 자비를 상징한다하여 중요한 보석으로 여겨졌다. 한 때 특정한 계층에게만 보석의 착용이 허용된 경우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귀족들, 스페인에서는 왕족들만이 착용을 할 수 있었고,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장신구 착용을 제한하는 사치금지령이 있었다. 이렇듯 보석은 권위와 권력, 그리고 종교의 상징으로 오랜 시간동안 굳건한 지위를 지켜왔다.



원래 그랬었다.





사랑, 특히 영원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사랑과 보석은 꽤나 잘 어울린다. 그리고 사랑의 결정적 단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결혼의 과정에는 대다수 사회에서 보석이 등장한다. 또 보석의 의미 혹은 효능을 기술한 도표에서 가장 흔하게 눈에 띄는 단어 역시 사랑 혹은 애정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사드(홍마노)가 정열과 에로틱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중세기의 보석 목록에 따르면 다이아몬드가 승리와 성공, 미와 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사랑의 호신부로 믿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현재에 와서 좀 더 보편화 되어 있다. 1947년 드 비어스(De Beers)라는 미국 보석 회사에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a diamond is forever”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 광고 카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광고 슬로건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현재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영원한 사랑으로 인식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동양의 십이지신과 비슷하게 열두 달에 해당하는 열두 가지 보석이 있다. 탄생석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으나 종교에서 기인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몇몇 성서에 따르면 유태대제사장의 예복에 이스라엘 열 두 부족의 이름을 조각한 열두 가지 보석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들이 신과의 매개 역할을 하는 십이사도를 의미했다고 한다. 이를 유래로 하여 월별 탄생석의 종류와 순서가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각 탄생석에는 나름의 의미가 부여되었고, 자신이 태어난 달의 탄생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생겨났다. 탄생석의 종류와 의미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탄생석이 상징하는 모든 의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점이다.

진실, 우정, 평화, 성실, 총명, 고귀, 행복, 건강, 부귀, 용기, 정의, 부부의 화합, 진리, 불변, 희망, 순결, 우정, 성공, 승리.

이런 다소 미신 같은 이야기를 이 시대에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여전히 흥미로울 수는 있다. 재미삼아서라도 사주팔자 풀이에 한 번 뜯은 기웃거리고, 또 그 이야기가 한동안 귓가에 맴돌듯 말이다.

어찌하였든 이런 저런 의미를 담은 보석은 그래서 가치 있다.

소유.

무엇을, 왜 가질 것인가?

누가 되었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가 살아가는 테두리가 너무 좁거나, 지나치게 견고하거나. 혹은 일정 경지 이상에 도달한 수련자일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는 현실에서 멀어져 있고, 앞의 두 경우는 현명해 보일지는 모르나 조금 슬퍼 보인다. 아니면 자만이다. 우리는 늘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소유할수록 풍족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포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처음 언급했다시피 소유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소유는 그 욕망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다. 해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말이다. 그렇다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무지막지한 질문에 답을 할 만한 그릇은 못된다. 다만 욕망은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조절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죽는 그날 까지 갈구하는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다.





점유 Occupation

익숙해져버린 공간을 벗어난 생소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회가 반가운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생각과 시야를 가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길다고도 짧다고도 할 수 없는 대부도의 일상에서 비롯된 이 작업은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있는 소유에 대한 작업 구상과의 연관성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다. 아니 어쩌면 시한부로 머문다는 생각에 잘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어디선가 듣고 보았던 어렵풋한 사실은 이곳의 지도가 간척사업에 의해 적지 않게 변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는 십여 년 전 우연한 방문에서 느꼈던 황량함이 남아있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땅과 개발에 대한 기대와 정체, 또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흔적들을 적지 않게 마주했다. 사실 그것은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서울 근교 풍경에 진배없었다. 다만 조그맣게 진동하는 묘한 불편함은 우리의 땅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좀 더 치열하게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끔 어느 상점에서 손님으로서, 또 침입자로서의 대우를 동시에 받았을 때와 유사한 느낌이었고, 그런 방어적이면서도 우호적이고, 폐쇄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인 기운이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당연한 행위다. 하지만 우리의 토지에 대한 욕망은 나의 공간을 규정하는 동시에 타인의 땅을 결정짓고자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욕망은 그 범주를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는 다시 욕망을 부추기며 우리 스스로를 구속한다. 그 순환 속에서 권리의 경계는 침해해져 간다. 지구라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대부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의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육지 동물이다. 대부도의 모양은 인간의 삶을 위해 적지 않게 바뀌어져 왔고, 새로운 땅은 인간에게 귀속되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배타적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땅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2012



인간의 섬



두 가지 바람

이혁준

jun3986@gmail.com

www.yihyukjun.com

학력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순수사진 졸업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순수사진 졸업

주요 개인전

- 2013 소유_돌, 경기창작센터, 안산
Forest, Space Can Beijing, 북경
- 2012 녹색 기억, 경기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 2010 *Forest_Eden*, Toyota Art Space, 부산
Forest, Sarah Lee Artworks & Project,
산타모니카, USA
Forest_Eden, 상상마당, 서울
- 2009 숲, 갤러리 보다 컨템퍼러리, 서울
숲, 갤러리 와, 서울
- 2007 풍경-밤과 숲, 대안공간건희, 서울
- 2002 *Digital Display*, 조선일보 옥외 전광판 외, 서울
- 1999 4, SK 포토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 2014 네오산수,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 2013 *Noorderlicht presents SIFF*,
Noorderlicht Photofestival 2013, 네덜란드
UPOPIA, 기마치 하우스, 야마구치, 일본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안산
Trans_2012-2013, AIAV, 아키요시다이, 일본
- 2012 123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공터 프로젝트, 청주 전 연초제초창, 청주
Hong Ko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홍콩
슬로우아트, 헤이리
시간의 풍경, 성남아트센터, 성남
ULTRA NATURE,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NETWORK2012, 봉산문화센터, 대구
인간서식지,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1 실재의 우회, 서울사진축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몸쓸 낭만주의, 아르코미술관, 서울
듀얼 이미지,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어떤 풍경, 카이스 갤러리, 서울
- 2010 싱가포르 국제사진 페스티벌, 싱가포르
대구국제사진비엔날레, 대구
On the Cutting Edge-한국현대사진의 경향,
국립 미술관, 대만
Beyond Landscape, 아트파크, 서울
Mapping Mindscape, 케이앤갤러리, 서울
오 명화!, 경기도 미술관, 안산

- 2009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2009, 가든파이프, 서울
사진비평상 10년의 궤적-시간을 읽다,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SEROTONIN II,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PHOTO KOREA 2009, 고엑스 장보고홀, 서울

수상 및 레지던시

- 2014 호세마르띠 문화원, 쿠바
- 2013 PSB 레지던시, 북경, 중국
AIAV(Akiyos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야마구치, 일본
- 2012-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4
- 2011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 2009 SKOPF(상상마당 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서울
- 1999 사진비평상, 서울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KT&G상상마당
현대문학
고은사진미술관
서울대학교 치의예박물관
현대산업개발
미래엔인천에너지
APA, 프랑스
AIAV, 일본